## 성십자가 교황청 대학 교 25주년 기념

로마 교육센터는 지금의 성십 자가 교황청 대학교 (Universitá Pontificia Santa Croce) 의 원조로서 성호세마 리아 에스크리바의 영감을 따라 알바로 델폴릴료 주교님께 서 시작하신 학교이다.

2009-11-16

오푸스데이의 단장주교이자 성십자가 대학 총장인 하비에르 에체바리아주교는 자난 10월 4일에 개강 행사를 주례하였다. 성십자가 대학은 올해 25주년을 맞는다.

에체바리아 주교는 강론에서 "25년 후에 저희가 볼수있는 이 학교는 교 회와 사제들을 위한 오푸스데이 설립 자 성호세마리아와 후임 델폴티료 주 교님 의 사랑이 반영된것이라 할수 있습니다" 라고 하였다. 성호세마리 아는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최고 의 대학 교육 센터를 만들길 원하였 고 가톨릭신자들사이에서 교황과 일 치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 하였다. 그는 일치와 보편의 상징이 며 만은 성인들을 낳아낸 로마를 마 음을 다하여 사랑하였다.

강론에서 또 오푸스데이 단장은 "델 폴틸료 주교님께서는 교회의 가르침 을 따르고, 현대 문화와 대화하며 학 생들이 훌륭한 과학 교육을 받으며 영성 교육도 받을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 하였다"고 말 하였다.

개강 강의를 맡은 안토니오 미라예즈 교수는 첫번째 총장이었던 델폴틸료 주교는 "성십자가 대학이 진실에 대한 사랑과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가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질수 있는 대학 생활을 마련 할수 있게 되도록 원하였다" 고 하였다.

대학 25주년 기념을 위해 아폴리나레 빌딩 1층에서 대학교 초창기와 발전 사를 담은 사진 전시가 있을 계획이 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seongsibjaga-gyohwangceongdaehaggyo-25junyeon-ginyeom/ (2025-11-30)